

근대5종 세계선수권 남녀 계주 동반 우승 '새 역사'

전용태·서창완, 남자 계주 금메달 합작...2회 연속 올림픽 입상 기대 여자 김선우·성승민, 수영·레이저 런 1위 앞세워 사상 첫 금 획득

근대5종 전용태(광주시청)가 서창완(국군체육부대)과 함께 국제근대5종연맹(UIPM)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계주 우승을 차지했다. 2020도쿄대회에서 한국 근대5종의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던 전용태는 2024 파리올림픽 경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며 2회 연속 올림픽 입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용태와 서창완은 지난 10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UIPM 2024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런에서 1466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2위에는 1442점을 얻은 우크라이나의 막심 아 하루셰프(Maksym Aharushev)와 올렉산드르 도브카이(Oleksandr Tovkai)가, 3위에는 1427점을 따낸 프랑스의 레오 보리(Leo Bories)와 우고 플뢰로(Ugo Fleurot)가 자리했다. 남자 대표팀은 펜싱에서 25승 11패를 기록하며 250점을 획득해 전체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수영에서 1분 51초73의 기록으로 324점을 획득하며 2위, 승마에서 29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마지막 경기인 레이저런(사격+육상)에서 596점을 얻으며 2위를 기록한 한국은 5개 종목 합계 총 1466점으로 남자 계주 1위를 차지했다. 근대5종 남자 계주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은 2022년 전용태와 정진화가 정상에 오른 뒤 2년 만이다.

한국은 여자 계주에서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처음으로 남녀 계주 동반 우승을 이뤘다. 김선우(경기도청)와 성승민(한국체대)은 여자 계주에서 합계 1321점으로 이집트의 헤디 모스(Haydy Morsy)와 아미라 칸딜(Amira Kandil)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대표팀은 수영과 레이저 런에서 각각 303점, 49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펜싱과 승마에서는 각각 242점 286점으로 2위에 오르며 고른 기량을 발휘했다. 2019년과 2022년에 획득한 동메달이 이전까지의 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이었던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4 파리올림픽 근대5종 경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근대5종 강국인 유럽국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오르며 다가올 파리 무대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전용태는 국제근대5종연맹 인터뷰를 통해 "먼저 우리 여자 계주 대표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남자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해 기분이 좋다"며 "개인전에서도 열심히 하겠다. 남씨는 한국과 조금 다르지만 이곳에 와서 세계선수권대회를 뛰고 올림픽을 준비하게 돼 신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16일까지 열리며 오는 15일과 16일에는 각각 남녀 개인전과 혼성계주 우승자가 가려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선우



성승민



서창완·전용태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 강릉단오 금강장사 3연패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최정만(사진)이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했다. 최정만은 11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내 특별경기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에서 정종진(울주군청)을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첫판과 두 번째 판을 모두 안다리 걸기로 승리했고, 세 번째 판에선 시작과 동시에 발다리 기술로 정종진을 쓰러뜨리며 손쉽게 황소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최정만은 16강에서 신현준(문경시청), 8강에서 문윤식(광주시청)을 각각 2-0으로 꺾었고, 준결승에서 만난 이준형(MG새마을금고씨름단)은 2-1로 눌렀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전국 첫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합리적 기금 운영 나서

전남도체육회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중 처음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도체육회는 지난 10일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결산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함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전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및 전남도체육진흥기금 운영 관련 사항 보고 등이 진행됐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법조계, 교육계, 행정계, 체육계 등 다양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조성식 도체육회 부회장이 위원장, 나양명 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강인중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송원익 전 세한대 교수, 안용준 도체육회



전남도체육회가 10일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선수관리담당관, 김성우 공인회계사, 박경태 도체육회행정지원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 도체육회의 운영 기금은 전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18억4600여만원)과 전남도체육진흥기금(13억6000여만원) 등 총 31억여원이다. 기금심의위원회는 도체육회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기금 관련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체육인들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KLPGA 대세' 이예원, 한국여자오픈서 4승 도전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승을 쓸어 담으며 '대세'로 등장한 이예원(사진)이 이번에는 내셔널 타이틀 사냥에 나선다. 이예원은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DB 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다. 한국여자오픈은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다. 여자 프로 골프 대회로는 KLPGA 챔피언십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KLPGA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이기도 하다. 이예원은 상금랭킹 1위(6억5843만원), 대상 포인트 1위, 다승 1위(3승), 그리고 평균타수 2위 등 전 부문에서 선두권이다. 한국여자오픈마저 제패한다면 상금왕과 대상은 물론 다승왕과 평균타수 1위 등 개인 타이틀 싹쓸이 발판을 굳건히 다진다. 이예원은 지난해 상금왕, 대상, 그리고 평균타수 1위를 차지했지만, 다승왕은 4승의 임진희에게 내줬다. 이예원은 최근 치른 4차례 대회에서 우승 두 번과 준우승 한번이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았다.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에서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부활한 박민지가 건강 관리를 위해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것도 이예원의 발돋움에 가뭄을 해준다.



대신 맹장 수술을 받고 한 달가량 쉬 박지영이 필드로 돌아온다. 박지영은 지난날까지 7개 대회에서 2차례 우승을 따내며 이예원과 '대세' 경쟁을 벌였다. 작년 우승자 홍지원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한국여자오픈 2연패는 2003년과 2004년 우승자 송보배 이후 19년 동안 없었다. 홍지원은 2022년 한화 클래식, 작년 한국여자오픈 등 통산 2승을 모두 메이저대회에서 따냈다. 지난해 홍지원과 연장전에서 쟁던 김민별과 마

다숨은 설욕을 베퐬는다. 2021년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박민지와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준우승했던 박현경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박현경은 두산 매치 플레이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이정민은 메이저대회 2연승에 도전장을 냈다. 2022년 이 대회에서 '오구 플레이' 사고를 냈다가 뒤늦게 신고해 3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윤이나는 2년 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최강골프' 세플러, 2주 연속 우승컵 사냥

US오픈 김주형·안병훈 등 출전

남자골프 세계 최강 스코티 세플러(미국)가 2024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오픈 우승컵까지 들어 올릴 태세다.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13개 대회에 출전해 무려 5승을 거둔 세플러는 현지시간 1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리조트&컨트리클럽 2번 코스(파70·7548야드)에서 열리는 제124회 US오픈에 출전한다. 세플러의 올해 성적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올

해 5승 중 4승이 2주 연속 거둔 우승이고, 13개 출전 대회 중 톱10 밖으로 밀린 것은 딱 한 차례뿐이다. 한국시간으로 10일 끝난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세플러는 US오픈에서 다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독주 체제를 굳힌 세플러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은 마스터스(2022·2024년)뿐이다. 세플러의 독주를 저지할 선수로는 잭슨 쇼플러(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꼽힌다. 세계랭킹 2위 쇼플러는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플러의 대항마로

자리를 잡았다. 세계랭킹 3위 매길로이도 지난 5월 웰스파코 챔피언십 우승으로 분위기를 다잡고 2011년에 이어 다시 정상 탈환을 노린다. 매길로이는 작년 US오픈에서는 원팀 클라크(미국)에게 1타가 뒤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로는 김주형, 안병훈, 임성재, 강성훈, 김시우, 김성현이 출전한다. US오픈을 마지막으로 2024 파리 올림픽 남자골프 출전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끼리 벌이는 경쟁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